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영주, 이선희*, 이선주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Alcohol Harm Prevention Education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Young-Ju Lee, Sun-Hee Lee*, Sun-Ju Lee
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성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G지역 소재 대학의 간호대학생 실험군 30명과 대조군 30명으로 총 60명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주차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t=5.69$, $p<.001$), 음주태도($t=10.07$, $p<.001$), 음주거절 자기효능감($t=5.0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결과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은 음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향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preliminary post-experimental design study of an inequality control group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anti-drinking education on drinking-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st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tudy enrolled 60 nursing students divided equally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0 subjects each). The six-month educational program, comprising the progress and data collection period, extended from October 01 to November 30, 2020.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education on preventing the harmful effects of drinking.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higher drinking-related knowledge ($t=5.69$, $p<.001$) and better drinking attitude ($t=10.07$, $p<.001$) than the non-educated control group.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also observed in the self-efficacy toward drinking refusal ($t=5.02$, $p<.0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rinking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is an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to imbibe proper drinking culture and health promotion for nursing students having easy access to alcohol. In the future,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venting the harmful effects of drinking for diverse populations such 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Keywords : Nursing Student, Education,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Gimcheon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Lee(Gimcheon Univ.)

email: taiyou17@hanmail.net

Received August 17, 2022

Revised September 26,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 억압되어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학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음주는 평생 습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음주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3명이 음주로 사망하여 연간 총 4,694명이 음주로 사망하고 있다[2]. 음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고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조 3,698억 원이다[3]. 위험 음주는 약 200여 종의 질병과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위험 음주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4].

대학생 음주행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 번의 술자리에서 10잔 이상 폭음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남학생 44.1%, 여학생 32.8%로 성인 남성(21.9%)과 성인 여성(6.2%)에 비해 문제음주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약 2배, 여학생의 경우 약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처럼 대학생의 음주율과 폭음은 높은 증가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문제음주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들의 위험한 음주행위가 가정과 학교,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어 음주 관련 문제 발생의 위험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6].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심각성나 적극적 개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음주문화와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대학생을 위한 중재교육이나 예방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7]. 문제음주는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을 야기하여 인간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8]. 대학생들의 문제 음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생들의 문제가 되는 음주 행태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발굴하여 집단특성에 맞는 대책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5].

Choi와 Ha[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으로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음주 상황별 접근이나 대처기술의 훈련이 포함되고 성격유형을 고려한 음주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고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행동 실태 및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보고[10]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음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낮게 보고하였고, 참여 의사 또한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의 음주 관련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대학생의 음주행동 실태와 음주관련 지식, 음주 동기 및 음주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11-14]들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음주예방 프로그램과 절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15-20].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주폐해예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생 시기에 잘못된 음주관련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대학의 졸업과 함께 직장으로 이어지고 또한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게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잘못된 음주문화를 예방하는 것은 향후 중·장년기의 만성질환 유행율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여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을 제공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대학 내 건전한 절주문화 정착과 절주 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1.3 연구 가설

- 가. 제 1가설 :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나. 제 2가설 :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다. 제 3가설 :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본크기

본 연구는 G지역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표본수를 정하기 위해 G-Power 3.1.9를 사용하여 양측검정으로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f)=.8, 검정력($1-\beta$)=.80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그룹의 표본수는 최소 26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그룹의 표본수는 각 30명으로 총 6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탈락률은 없었으며, 실험군 30명과 대조군 30명으로 총 6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음주폐해예방교육 진행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배부와 작성법에 대해 교육 후 배부 및 회수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 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자율적 참여결과와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으며,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조군에게도 사후조사가 끝나고 음주폐해예방교육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음주관련 지식

음주관련 지식 측정도구는 청소년위원회[21]와 음주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프로그램[22]에서 개발한 음주 관련 측정도구와 연구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행한 2019년 제 3차 절문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중 음주 관련 문항을 토대로 총 1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 범위는 0점~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관련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2 음주태도

음주태도는 JeKarl[23]이 개발한 한국인의 음주실태 평가도구 중 음주인식과 태도에 관한 16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총 점수분포는 16점~80점이며 16문항 중 7문항을 역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임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8이었다.

2.4.3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Aas 등[25]이 개발한 거절 자기효능 척도를 Cho[2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문항으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처리되어, 총 점수분포는 7점~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6이었다.

2.5 연구진행절차

2.5.1 음주폐해예방교육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제3차 절주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교재를 토대로 대학생들에게 맞게 음주폐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교육 내용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위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보건소 절주사업 담당자 1인으로 구성된 총 3인에게 자문을 받아 교육내용 검증을 받았다. 실험군에게 교육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주 1회로 총 6주 동안 6회차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회차 당 교육시간은 50분으로 하였다. 1회차 교육은 사전조사와 오리엔테이션, 음주에 대한 이해, 2회차에는 음주와 뇌과학, 3회차에는 음주와 사회경제적 폐해, 4회차에는 알코올 중독과 치료, 5회차에는 음주와 신체질환, 6회차에는 음주

폐해예방정책에 대한 교육과 사후조사로 종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Acohol harm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Session	Composition	Time
1st	·Preliminary research and orientation ·Understanding of drinking	50min
2nd	·Drubjubg and brain science	50min
3rd	·Social and economicharm caused by drinking	50min
4th	·Alcoholism and treatment	50min
5th	·Alcohol and physical illness	50min
6th	·Drinking harm prevention policy ·Post-mortem investigation ·Closing	50min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실수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 동질성 검정을 위해 chi-square test와 t-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두 집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 결과 성별, 연령, 종교, 학년, 전공만족도, 거주형태, 월 용돈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중 1학년은 없었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60)

Classification	Categories	Ex.(n=30)	Con.(n=30)	χ^2 or t	p
		N(%)	N(%)		
Gender	Male	12(40.0)	11(36.7)	0.07	.791
	Female	18(60.0)	19(63.3)		
Age(yr)	21	6(20.0)	8(26.7)	1.94	.380
	22	12(40.0)	7(23.3)		
	23≤	12.0(40.0)	15(50.0)		
Religion	Have	7(23.3)	11(36.7)	1.27	.260
	Not have	23(76.7)	19(63.3)		

Grade	2	14(46.7)	11(36.7)	0.74	.692
	3	11(36.7)	12(40.0)		
	4	5(16.7)	7(23.3)		
Major Satisfaction	Usually	7(23.3)	7(23.3)	1.64	.440
	Little satisfied	5(16.7)	9(30.0)		
	Very satisfied	18(60.0)	14(46.7)		
Residence type	Living with parents	5(16.7)	10(33.3)	2.67	.446
	Dormitory residence	9(30.0)	9(30.0)		
	Living alone	14(46.7)	10(33.3)		
	Living with friends	2(6.7)	1(3.3)		
Pin money (per month)	≤100,000	9(30.0)	7(23.3)	3.45	.485
	110,000~200,000	-	2(6.7)		
	210,000~300,000	7(23.3)	4(13.3)		
	310,000~400,000	5(16.7)	7(23.3)		
	410,000≤	9(30.0)	10(33.3)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3.1.2 대상자의 음주관련 습관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소 음주관련 습관에서 최근에 술을 마신 시기, 평소에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 일주일 중 주로 술을 마시는 요일,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횟수, 주로 술을 마시는 대상자, 장소, 처음 술을 마셔본 시기,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1.3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두 그룹 간 사전 음주관련 지식 ($t=.92, p=.361$), 음주태도($t=-0.07, p=.941$), 음주거절 자기효능감($t=-0.36, p=.719$)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사전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Table 4].

3.2 음주폐해예방교육이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3.2.1 제 1가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은 대조군의 음주관련 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11.43 ± 0.97)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8.67 ± 2.48)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5.69, p<.001$)[Table 5].

Table 3. Homogeneity Tests of drinking-related habit

(N=60)

Classification	Categories	Ex.(n=30)	Con.(n=30)	χ^2 or t	p
		N(%)	N(%)		
Last time you drank alcohol	Less than 1 week	16(53.3)	15(50.0)	.36	.836
	1 week ~ 1 Month	7(23.3)	9(30.0)		
	1 Month ~ less than 6 Month	7(23.3)	6(20.0)		
Type of alcohol you usually drink	Soju	16(53.3)	11(36.7)	1.70	.427 ⁺
	Beer	10(33.3)	14(46.7)		
	Mixed intake	4(13.3)	5(16.7)		
Main drinking days	Friday	19(63.3)	14(46.7)	3.36	.340
	Saturday	3(10.0)	7(23.3)		
	Sunday	0(0.0)	1(3.3)		
	Any day	8(26.7)	8(26.7)		
Number of times drunk in the past year	1~5 times a year	6(20.0)	6(20.0)	3.171	.544 ⁺
	6~11 times a year	6(20.0)	4(13.3)		
	1~2 times a month	3(10.0)	6(20.0)		
	3~4 times a month	12(40.0)	8(26.7)		
	2~3 times a week	3(10.0)	6(20.0)		
People drinking alcohol together	Friend or colleague	24(80.0)	23(76.7)	1.22	.748
	Senior or junior	2(6.7)	2(6.7)		
	Lover	1(3.3)	3(10.0)		
	Alone	3(10.0)	2(6.7)		
Place of alcohol consumption	House	9(30.0)	7(23.3)	2.25	.522 ⁺
	Friend's house	3(10.0)	3(10.0)		
	Restaurant	0(0.0)	2(3.3)		
	Bar	18(60.0)	18(60.0)		
First drinking time	Elementary school	3(10.0)	2(6.7)	2.29	.515
	Middle school	10(33.3)	6(20.0)		
	High school	9(30.0)	14(46.7)		
	University	8(26.7)	8(36.7)		
Reasons for first alcohol intake	Recommendation to friends and seniors	4(13.3)	6(20.0)	2.44	.655 ⁺
	Recommendation from parents or relatives	10(33.3)	10(33.3)		
	Curiosity	12(40.0)	13(43.3)		
	Upsetting	3(10.0)	1(3.3)		
	Others	1(3.3)	0(0.0)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4. Homogeneity verification of the subject's dependent variable

(N=60)

Variable	Ex.(n=30)	Con.(n=30)	t	p	F
Drinking related knowledge	9.07±1.62	8.63±2.01	.92	.361	2.74
Drinking attitude	48.77±5.22	48.87±5.26	-.07	.941	.0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18.30±4.29	18.70±4.27	-.36	.719	.02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Table 5. Comparison of drinking-related knowledge, drinking attitude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between the experimental

(N=60)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Diff	t	p
		M±SD	M±SD	M±SD		
Drinking related knowledge	Ex.(n=30)	9.07±1.62	11.43±0.97	2.37±1.30	-9.98	<.001
	Con.(n=30)	8.63±2.01	8.67±2.48	0.03±1.38	-.13	.895
	t	.92	5.69			
	p	.361	<.001			
Drinking attitude	Ex.(n=30)	48.77±5.22	64.17±3.19	15.40±5.78	-14.59	<.001
	Con.(n=30)	48.87±5.26	49.67±4.63	0.80±1.94	-2.27	.031
	t	-.07	10.07			
	p	.941	<.001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Ex.(n=30)	18.30±4.29	30.47±2.83	12.17±6.68	-9.98	<.001
	Con.(n=30)	18.70±4.27	19.70±3.09	1.00±3.60	1.52	.139
	t	-.36	5.02			
	p	.719	<.001			

*Ex.=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3.2.2 제 2가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64.17±3.19)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49.67±4.63)에 비해 음주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10.07, p<.001)[Table 5].

3.2.3 제 3가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30.47±2.83)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19.70±3.09)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t=5.02, p<.001)[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주 여대생에게 자기효능증진 절주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관련 지식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5]와 일치하였다. 또한 절주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문화 인식도, 음주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한 연구[18]에서 절주동아리 활동을 시행한 실험군은 동아리 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관련 지식이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관련 지식은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11.43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점수 8.67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기 전보다 2.37점이 향상되었다. 음주관련 지식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단기적인 교육보다 지속적인 음주예방 교육을 통해 음주관련 지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최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주폐해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주관련 지식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회인지이론을 접목하여 절주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제음주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문제음주 대학생보다 음주 관련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7]와 일치하였다. 또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 관련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18]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를 처

음 접했던 시기가 중·고등학교 때로 보고한 비율이 60% 이상이 넘는 것과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음주폐해예방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문제음주예방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험군이 참여하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0]와 일치하였으며,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문제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8]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음주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음주거절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29], 대학생의 음주태도, 음주지식,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에서 음주지식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태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30]. 청소년기를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학 문화를 접하게 되고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 음주지식과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음주폐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고 제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시행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음주폐해예방 교육을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이에 따른 효과 검증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주폐해예방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음주태도,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주폐해예방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절주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한 연구자가 음주폐해예방교육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음주를 쉽게 접

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올바른 음주문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바람직한 건강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음주폐해예방교육은 향후 간호대학생과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변화 연구에서 유용한 중재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에게 음주폐해예방교육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로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Choi, S. M. Kim, "A Study on Drinking Problems and Depression for Drinking Habits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3, pp.1138-1146,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3.1138>
- [2] Statistics Korea. (2020). 2019 Causes of dea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21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Target=title&sTxt=
- [3] Y. H. Jung, S. J. Ko, E. J. Choi, Y. C. Choi, E. J. Kim, "Socioeconomic Cost of Alcohol and Cost-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Reduce Alcohol-related Har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Vol.12, No.7, pp.1-165, Sep. 2012.
- [4] J. Rehm, D. Baliunas, G. L. Borges, K. Graham, H. Irving, T. Kehoe, et al.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 dimensions of alcohol consumption and burden of disease: an overview", *Addiction*, Vol.105, No.5, pp.817-843, May 2010. DOI: <https://doi.org/10.1111/j.1360-0443.2010.02899.x>
- [5] Y. J. Ju, S. S. Oh, S. I. Park, H. J. Lee, M. G. Yoo, E. C. Park. "College alcohol study for alcohol-related behaviors and problem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Vol.29, No.1, pp.58-67, 2019.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9.29.1.58>
- [6] E. C. Park, J. M. Nam, S. I. Jang, "College students survey for alcohol behavior and proble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pp.1-297, 201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969>
- [7] G. Park, S. H. Choi,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reducing alcohol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nd

-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9, pp.364-373,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364>
- [8] K. H. Seo, “Roles of Life Stress and Ego-Resilience in Problem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Alcohol Science Journal*, Vol.10, No.2, pp.21-34, 2009.
- [9] H. O. Choi, Y. M. Ha,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Alcohol Expectanci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2, pp.1125-1144, 2017.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2.59>
- [10] J. H. An, H. C. Kim, M. R. Kim, “Analysis of Drinking Behaviors and Need for Programs to Prevent Drinking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buk Region”, *Journal of East Asian Society Dietary Life*, Vol.24, No.4, pp.444-456, 2014.
- [11] J. I. Kim, “Comparison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State of Drinking, Drinking Motives, and Problem Drink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8, pp.183-19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8.183>
- [12] J. I. Kim, “The Effects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Motives on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5, pp.497-506,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497>
- [13] Y. B. Kim, “Association with drinking behavior, health promotion practices and mental health among first-year students in a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4, No.5, pp.95-105, 2017.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17.34.5.95>
- [14] E. G. Son, H. Y. Jung, “The Effects of Drinking Motivation on female college student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Drinking”,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2, pp.161-169,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161>
- [15] M. O. Chae, H. O. Jeon, “Effects of Alcohol Management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9, No.1, pp.120-132, 2018.
DOI: <https://doi.org/10.12799/jkachn.2018.29.1.120>
- [16] G. Park, S. H. Choi,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ng Reducing Alcohol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Drinking Outcome Expectancy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9, pp.364-373,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9.364>
- [17] C. R. Bingham, A. I. Barretto, M. A. Walton, C. M. Bryant, J. T. Shope & T. E. Raghunathan, “Efficacy of a Web-Based, Tailored, Alcohol Prevention/Interven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Initial Finding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8, No.4, pp.349-356, 2010.
DOI: <https://doi.org/10.1080/07448480903501178>
- [18] S. H. Choi, M. J. Park,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Program on Drinking Related Knowledge, Attitude, Drinking Refusal Self- Efficacy and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Girls”, *The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11, No.1, pp.17-26, 2010.
- [19] S. D. Kim, M. A. Jeong, “The Effect on the Knowledg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Drinking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by Cut Down Drinking Circle Activ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9, pp.4090-4097,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9.4090>
- [20] J. K. Ma, M. S. Yoo, “Effectiveness of Drinking Reduction Program Focused on Self-Determination Enhancement for College Students with Problematic Drinking”,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Society*, Vol.51, No.3, pp.265-279, 2021.
DOI: <https://doi.org/10.4040/jkan.20247>
- [21] Youth Protection Committee, “Twelve fields for youth drinking prevention”, *Seoul: Prime Minister Youth Protection Committee*, 2002.
- [22] Youth Protection Committee, “Results of the 2005 Comprehensive Survey on the Harmful Environment for Youth”, *Seoul: Prime Minister Youth Protection Committee*, 2006.
- [23] J. JeKarl, “The drinking situation of Koreans”, *Korean Drinking Culture Research Center*, 2001.
- [24] H. K. Kim, *Effects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Gongju, Korea, 2005.
- [25] H. Aas, K. I. Klepp, J. C. Laberg, L. E. Aaro,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Students on Alcohol*, Vol.56, No.3, pp.293-299, 1995.
DOI: <https://doi.org/10.15288/jsa.1995.56.293>
- [26] H. Cho, *Developing a predictive model for alcohol consumption behavior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Ph.D.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0.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26368>
- [27] S. M. Kim, H. O. Kim, “Effects of a Moderate Drinking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on College Students with Drinking Problem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5, No.2, pp.223-233, 2019.
DOI: <https://doi.org/10.4094/chnr.2019.25.2.223>
- [28] J. H. Kim, Y. R. Kweon, “Effects of a Problem Drinking Prevention Program Developed Based o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in Nursing Students”, *Iran Journal Public Health*, Vol.49, No.1, pp.186-188,

2020.

DOI: <https://doi.org/10.18502/ijph.v49i1.3067>

- [29] J. U. Kim, "The effect of drinking prevention group counseling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lcohol expectancy, and drinking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1, pp.115-130, 2007.
- [30] H. Y. Lee et al,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attitude, Drinking Knowledge, and Drinking Self-refusal 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Seoul,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Conference, 357, 2016.

이 선 주(Sun-Ju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보 건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보 건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기본간호, 만성질환

이 영 주(Young-Ju Lee)

[정회원]



- 2006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 호대학원 간호학과 (노인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사업, 다문화간호

이 선 희(Sun-Hee Lee)

[정회원]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대 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 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간호